

경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 준공

순창 유등면 천수공원서 주민 300여명 참석

순창군이 순창읍과 유등면, 풍산면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경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을 성공적으로 완료하고 지난 8일 준공식을 가졌다. 이날 준공식에는 황숙주 군수를 비롯한 정성균 군의회 의장과 순창군의회 의원, 전라북도 관계자, 주민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하게 열렸다. 식전행사, 내?외빈소개, 감사패 전달, 경과보고, 축사, 테이프 커팅, 시설관람 순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에 식전공연으로 유등면 풍물농악단의 공연이 행사장 분위기를 띄우며 주민들의 뜨거운 호응과 박수갈채를 받았다.

이번에 완료한 '경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은 황숙주 순창군수의 민선 6기 공약사업으로, 예산확보를 위한 각고의 노력으로 지난 2013년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됐다. 총 사업비 226억원이 투입된 이번 사업은 5.2km의 하천 정비와 교량연장 108m, 건교교 재가설, 지방도 730호선 도로 승상공사 1.7km, 유등 힐링공원 조성, 자전거 길 개설 등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집중호우시 매년 침수되어 교통이 단절되었던 지방도 730호선 도로 승상공사와 건교교 재가

설로 재해예방에 큰 도움이 되어 주민들의 안전확보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여기에 유등 힐링공원 조성으로 주민 쉼터를 크게 확대하는 동시에 공원내 파크골프장 시설 조성으로 주민들의 여가활동 기회도 높였다. 황숙주 군수는 축사를 통해 "그동안 순창읍과 유등면 소재지를 흐르는 경천은 집중호우에 취약해 하천물이 넘쳐, 유등면 건교교 앞을 지나가는 지방도 730호선이 자주 침수됐다"며 "'경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으로 유등면과 풍산면 주민들이 아무 걱정없이 무사히 통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순창=이양원 기자

남원, 2020년 국가예산 확보 총력

지휘부 국가예산 확보 국회 예결위 방문

남원시가 2020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국회 예산심의 단계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지난 7일 김동규 부시장을 비롯한 시 간부 공무원들은 이용호 지역 국회의원을 비롯한 안호영(더불어민주당), 김광수(민주평화당), 정운천(바른미래당), 송갑석(더불어민주당) 예결위 국회의원 사무실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국가예산확보 현안사업을 설명하는 데 심혈을 기울였으며, 지역 선출배 공무원 등을 찾아 협조를 요청하는 등 지역 현안법안 처리와 국가예산 추가확보를 위한 활동을 전개해왔다고 전

했다. 남원시가 2020년 국회단계에서 예산을 추가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은 ▲지리산 친환경 전기열차(국비 20억) ▲국립 공공의료대학원 설립(국비 30.4억) ▲국립 치유농업원 조성사업(국비 10억) ▲지리산 거점형 육아종합지원센터(국비 10억) ▲남원의료원 공공형 산후조리원 건립(국비 25.5억) ▲남원시 서천지구 배수개선사업(국비 10억) ▲국도 24호선(인월서부리) 회전교차로 건설사업(국비 8억) 등 7개 사업으로 국비 총 111.7억 중 114억에 이른다. /남원=김기두 기자

지역 매아리

순창, 12월까지 상수도 공급 관 세척

순창군은 한국수자원공사와 공동으로 오는 12월까지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을 진행해 순창읍내 상수도 관 세척을 대대적으로 진행한다.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은 2019년부터 5개년 동안 진행되는 사업으로, 168억원의 사업비를 투입, 유수를 85%를 달성하기 위해 노후 관망정비와 누수탐사, 블록 및 유자관리시스템 구축 등을 시행하게 된다. 이번에 진행되는 상수도관 세척은 순창읍내 노후 관망 정비 시 발생하는 탁수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더 맑은 수돗물을 주민에게 공급하기 위한 것으로, 수도관 안으로 공기를 주입하여 관에 낀 불매를 제거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군은 지난달 23일 시범적으로 심야 시간에 순창읍 옥천동 일원 95세대에 상수도 공급관로 세척을 시행, 수돗물 수질이 개선되었음을 확인했다. 순창읍내 2,500여 가구를 대상으로 오는 12월까지 진행되는 이번 세척작업은 단계적으로 진행되며, 세척 작업시 심야시간에는 수돗물 공급이 일시 중단된다. 군은 단수로 인해 불편이 예상되는 순창읍 주민들을 위해 집집마다 방문해 사전설명으로 주민 혼란을 최소화할 방침이며, 비상상황에 대비해 먹는 샘물도 준비하고 있다. /순창=이양원 기자

임실 선거마을, 마을만들기 정부포상 겹경사

현장포럼 우수사례 발표대회 최우수상 및 사회적농업 분야 국무총리상 수상

임실군 선거마을(위원장 박미, 이장전정환)이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2019년 주민 주도 마을만들기 농촌현장 포럼 우수사례 대상마을로 선정돼 최우수상을 받았다. 농촌현장포럼은 지역 주민주도의 상향식 지역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주민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마을 특성에 적합한 사업계획 수립, 공동체의 현안해결, 공동체 활성화 등을 위해 실시하는 농촌공동체 프로그램으로 농식품부 주관으로 실시되는 사업이다. 농식품부는 매년 현장포럼 우수사례 발굴 및 전파를 위해 '현장포럼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개최하며 올해는 지난 달 24일 전국에서 9개 대표마을이 참석해 경합을 벌였다. 전북 대표로 참가한 선거마을(박미 위원장)은 2018년도에 시작하게 된 동기와 현재까지 운영된 마을의 다양한 변화를 일으키는 과정과 협의 내용을 발표하며 최우수상을 수상하게 됐다. 선거마을에는 박미 대표가 국무총리



임실군 선거마을이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2019년 주민 주도 마을만들기 농촌현장 포럼 우수사례 대상마을로 선정돼 최우수상을 받았다.

상을 수상하게 돼 겹경사가 이어졌다. 박미 대표는 마을주민과 함께 '선거 웰빙푸드 영농조합법인'이라는 마을 기업을 함께 운영하면서 각종 마을사업의 추진위원장을 맡는 등 마을활성화를 위해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또한, 국정과제의 하나인

'사회적 농업' 시범사업을 도입해 마을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복지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다함께 더불어 사는 농촌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공로를 인정받아 11일 '농업인의 날'에 국무총리상을 수상하게 됐다. /임실=진홍영 기자

순창사랑상품권 부정유통자 적발, 16명 경고

순창군이 최근 순창사랑상품권 부정유통자 16명을 적발하여 경고조치했다. 군은 상품권을 출시한 지난 8월 1일부터 상품권관리시스템을 통해 상품권의 판매·환전이력을 상시 모니터링해 부정유통자를 색출해내고 있다. 군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한 16명이 부정유통한 상품권 유통 규모는 전체 20건에 7백 31만원 규모로, 상품권을 구매한 후 재화와 용역의 공급없이 환전했다. 이번에 적발된 대상자 중 가장 많은 부정유통금액은 100만원으로 밝혀졌다. 군은 이번에 적발된 부정유통자에 대해서는 주의를 요하도록 경고조치를 취하는 한편 상품권관리시스템 모니터링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

갈 계획이다. 또한 이러한 부정유통 사태가 재차 발생할 경우, 부당이익 환수와 상품권 구매제한, 사법기관 수사의뢰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가맹점에 대해서도 부정행위 적발시 가맹점 지정취소와 부당이익 환수, 상품권 구매제한 등 병행 추진한다. 여기에 군은 이달부터 상품권 부정유통사태를 근절하고자 포상제도도 새롭게 도입한다. 이번에 시행될 부정유통 신고자 포상제도는 신고자가 부정유통 사실을 적발해 신고자 명확한 근거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적발된 금액의 1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군은 이번 제도의 시행으로 불법적인 상품권 유통 근절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순창=이양원 기자

남원시, 2019년 쌀 직불금 119억9천여만원 지급 개시

남원시에서는 쌀 생산농업인들의 경영안정과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하여 2019년 쌀소득보전고정직불금으로 111억9000여만원으로 호당 평균 123만 9000여원을 11월 하순까지 지급 완료

하겠다고 밝혔다. 남원시는 2019년 쌀 고정직불금 지급을 확정하기 이전에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대상자로부터 신청을 받고 관련규정에 따라 5월부터 9월까지 신청농지에 대한 국립농

산물품질관리원의 이행점검은 물론 직불금 지급요건 적합여부에 대하여 그동안 세밀한 점검을 거쳤다. 시에 따르면 쌀 고정직불금은 9,031농가에 총 지급면적은 1만1170ha로 ha당 지원기준은 농업진흥지역 107만 6416원, 농업진흥지역외는 80만7312원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시, 민선7기 공약사업 성공적 추진 보고서

남원시(시장 이환주)는 지난 8일 민선7기 공약사업의 체계적 관리와 원활한 이행을 위한 추진상황 보고회를 가졌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이환주 시장의 주제로 부시장, 국·소장 및 공약사업 소관 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 품격있게 육성하는 문화관광 △ 좋은 기업과 일자리 역동하는 지역경제 △ 희망과 행복이 가득한 교육복지 △ 스마트 농업 품으로 농촌 △ 친절한 소통행정 편리한 도시환경 등 5대 분야 34개 사업의 추진상황

에 대한 심도 있는 점검이 이루어졌다. '남원사랑 상품권 발행', '치매안심센터 설립 운영', '시내버스 1,000원 단일요금제 시행' 등 8개 공약사업은 이행완료 후 계속 추진 중이었으며, '지리산 친환경 전기열차 도입', '대한민국 대표 문화도시 지정', '남원형 일반산업단지 조성',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조기 개교', '매우 친절한 남원시청 만들기' 등 나머지 26개 사업도 정상 추진되고 있었다. /남원=김기두 기자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치즈

별기에 출신 지명인 신부(Didier '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